과천시, 1800억대 산업용지 매각 토지대금 조기 납부 기업에 가점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에 재정확보 목적 반영
구체적인 배점은 30일 공개 예정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1800억원대 산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토지대금을 빨리 납부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계획뿐 아니라 토지대금 납부 시기를 평가에 반영해 시 재정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13·14블록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기업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기업에 평가상 이점을 주는 방안도 공급지침에 반영했다.

공급 대상은 지식13블록 9835.1㎡와 지식14블록 1만312.5㎡ 등 총 2만147.6㎡(6094평)다. 두 필지의 감정평가액은 총 1844억원 규모로, 3.3㎡당 3000만원 안팎이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에 용지 공급 업무를 위탁했다.

이번 평가 기준에는 과천시의 재정 확보 목적이 반영됐다. 통상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는데, 대금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대금을 빨리 내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빨리 내면 낼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기업의 자금력과 함께 기술력, 기업 규모,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블록별로 한 곳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과천시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펄어비스, 메가존클라우드, 가비아, 광동제약, JW중외제약, 비상교육 등 IT·제약·교육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지식9블록에는 넷마블과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양공고 이후 기업들이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조기 납부에 따른 구체적인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은 오는 30일 분양공고 때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5일 서울 마곡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워홈 현장 점검

〈한화그룹〉

김동선 한화M&S 사장 동행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도약 강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그룹에 편입된 아워홈 사업장을 처음 방문해 식품 사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아워홈의 성장세를 격려하는 한편 한화그룹의 사업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25일 서울 마곡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를 찾아 식품안전실험실과 플레이버실험실, 가정간편식(HMR)실험실 등을 둘러보고 제품 개발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도 동행했다.

김 회장은 중금속과 항생물질, 식중독균 검사 과정을 지켜보며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조·물류 현장의 안전 투자와 개선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한 끼는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든든한 힘이자 고단한 일상 끝에 마주하는 따뜻한 위로"라며 "세상의 식문화를 창조하고 이끄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이 되자"고 독려했다.

김 회장은 아워홈의 성장 성과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그룹 편입 이후 이뤄낸 역대 최대 실적은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큰 성과"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아워홈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4000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26% 증가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2030세대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대에 선 김 회장은 직원들의 현장 이야기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회장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직한 울타리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양성운 기자 ysw@

9월까지 출생아 21.9만명… 전년比 14.3% ↑

데이터처, 증가율 역대 최고 기록

올해 들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7000여 명 늘었다. 전년대비 14.3% 증가했는데, 이는 45년 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21만8896명이 태어났다. 지난해 동기(19만1593명)보다 2만7303명(14.3%) 늘어나며, 해당 통계 작성이 처음 시행된 1981년 이래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는 최근 2년간 증가해 온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9명 증가한 0.90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2018년(0.96명) 이후 처음 0.9명대에 올라섰다.

이에,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0.9명대에 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25~29세가 1.1명, 30~34세가 8.2명, 35~39세가 8.7명 늘었다. 40세 이상도 0.3명 늘었다.

첫째아 비중은 커지고 있다. 3분기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63.5%로, 작년보다 1.3%포인트(p) 높아졌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7%p, 0.6%p 하락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41년으로 0.02년 줄었다. 결혼 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한 것. 다만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6299건으로 작년보다 2156건(11.7%) 감소했다. 8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분기 혼인 건수도 5만7799건으로 0.8% 감소했다. 분기별 혼인건수는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9월 이혼 건수는 7476건으로 6.0% 감소했다.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50건으로 1.0% 줄었다. 일반이혼율은 남자가 4.0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여자는 3.9건으로 0.1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